

# “올해 김장비용 30만원”...태풍 탓에 배추·무 생산량 줄어

### 지난해(27만원)비 약 10%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 추진

### 정부 “수매비축 후 탄력적 시장 공급으로 가격 안정 도모”

올해 태풍 피해로 배추·무 값이 오르면서 김장 비용도 지난해보다 10%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무 등을 수매비축하고 탄력적으로 시장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 공급 안정화와 김장비용 부담 완화, 김장문화 확산 및 소비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4인 가구 김장비용(11월

기준)은 30만원 내외로, 지난해 27만원보다 약 10%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생육초기 태풍 등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김장용 배추, 무의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향후 작황 회복 정도와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배추, 무 생산량은 초가을 장마, 3차례 태풍 등 영향으로 평년보다 상당 폭 감소할 전망이다. 가을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부진이 겹치면서 평년

보다 21% 감소한 110만톤 수준이며 가을무 생산량도 18% 감소한 38만톤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품목별 수급상황을 감안한 공급 확대를 통해 과도한 수급불안을 차단하고 김장채소류 수급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배추는 단기적 출하량 부족 상황에 대비해 김장 수요가 적은 11월 상순까지 4만5000톤을 수매비축하고 출하조절시설에 2만5000톤을 저장해 수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한다.

무도 출하량 부족에 대비해 11월 상순까지 4000톤을 수매비축하고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12월 출하 가능한 제주 월동무의 조기 출하(약 2000톤)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김장채소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을 내달 1일부터 가동한다. 이들은 대책기간 동안 품목별 공급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일일 점검하고 장애요인에 신속 대응하게 된다.

농식품부 김정희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으로 친지·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김장채소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배추, 무 등 김장채소들을 살펴보고 있다.

## 흡입 사망 논란에...

### 궐련형·CSV 신형 전자담배도 판매 감소세

2019년 3분기 담배시장 동향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들의 판매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 담배 판매량이 줄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3분기(7~9월) 담배 판매량은 9억3000만 갑으로 전년 동기보다 9억2800만 갑(0.1%) 증가했다.

그러나 1~9월 누적판매량을 보면 올해가 26억 갑으로 전년 동기 26억1000만 갑보다 0.4% 감소했다.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에 비해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담배 종류별로 보면 판매 감소세였던 궐련은 감소를 유지하는 반면 기존에 판매 증가세를 보였던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들도 감소세를 보였다.

3분기 궐련 판매량은 8억3000만

갑으로 전년 동기 8억5000만 갑보다 2.5% 감소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3분기 9000만 갑 팔려 전년 동기보다 13% 증가했으나 올해 2분기보다는 14.3% 줄어 판매량과 점유율이 둔화됐다.

CSV 전자담배는 5월 출시 이후 3분기에 980만 포드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7월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중순에 새로 출시된 연초고형물 전자담배는 3분기에 240만 갑이 판매됐다.

담배 제세부담금(반출량 기준)은 3분기 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출량이 전년 동기보다 2.1% 증가함에 따라 부담금도 1.3% 증가했다. 다만 9월까지 제세부담금 누계액은 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8조6000억원보다 5.3% 감소했다.



**찬바람 부는 날씨, 아동 방화화 준비하세요** 어린이 모델들이 28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아동 방화화 실내화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겨울에 앞서 다양한 캐릭터를 담은 '캐릭터 입체 방화 슬리퍼' 등 방화 실내화들을 판매한다.

## ‘불황 터널’ 길어지나

### 8월 창업기업, 부동산·제조업 부진에 또 10만개선 하회

지난 8월에도 창업기업 숫자가 10만개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 감소했고, 기술창업 역시 소폭 감소했다.

올해 1~8월 중 창업기업 숫자가 10만개선이 무너진 것은 2월과 6월 두 차례였다. 창업 비수기인 2월의 경우 전년 동월도 9만6000여 개 수준이었지만, 6월에 이어 한달 만에 창업기업이 다시 10만개를 밑돌았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창업기업은 9만7428개로 지난해 8월에 비해 7.7%(8092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술창업 숫자도 3.5%(618개) 감소한 1만7236개에 그쳤다.

2016년 8월 9만9511개였던 창업기업은 아쉽게도 8월 10만5753개, 지난해 10만5520개로 10만개 선을 유지했지만 올해 8월 신규창업 기업이 10만개를 밑돌며 주저앉았다.

기술창업의 경우 2016년 1만5421개에서 2017년 1만6398개, 2018년 1만7854개에 이어 올해도 엇비슷한 숫자를 기록하며 정체 상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업 2만6181개(26.9%) △부동산업 9621개(20.1%) △숙박·음식점업 1만4257개(14.6%) 순으로 설립됐다. 전년 동월 대비 부동산업(18.8%↓)과 기술창업 중 제조업(15.0%↓)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기술창업기업 중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지난해 8월 대비 각각 9.7%, 12.5% 증가했다. 그러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업황 부진에 따라 제조업과 교육서비스업이 각각 15.0%, 13.1% 감소하며 전년도에 비해 창업기업 숫자가 소폭 줄었다.

조직형태별로 살펴보면 8월 법인 창업기업은 8796개로 전년 동월 대비 1.1%(94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개인 창업기업도 8만8632개로 전년 동월 대비 8.3%(7998개) 감소했다.

성별로는 여성 창업기업이 전년 동월 대비 7.6%(3727개) 감소한 4만5298개, 남성 창업기업은 전년 동월 대비 7.7%(4373개) 감소한 5만2071개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창업에 가장 적극적인 40대(12.3%↓)와 50대(9.7%↓)의 감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